

해온이의 서구 역사여행 17

## 병천사 새우젓장수 母子碑

---

**최혁** 지음

---

**이야기 도움**

정인서/최중현

최풍조

---

**자료 도움**

조광철/지룡

수영경로당

---

**사진도움**

정인서/서구문화원

---



광주 서구 캐릭터 '해온이'를 소개합니다.

'해온이'는 서구의 상징 새인 해오리와 따뜻한 온(溫)이 합쳐진 것으로 따뜻한 서구를 상징하며 빨간 볼은 따뜻한 마음씨를, 두 날개는 높은 비상을 의미합니다.

## 병천사 새우젓장수 母子碑

- 120년 전 새우젓 모자 위해 세운 비석 100년 되어

그 날은 꽤 추웠다. 해운이도 이 날은 예전보다 옷을 한 겹을 더 꺼입어야 했다. 목도리도 단단히 매야 했다. 그만큼 추운 날씨였다. 한겨울로 들어가는 1900년 12월 6일(음 10월 15일)이었다. 해운이는 광주의 땅 부자로 알려졌던 지응현(池應鉉, 1867~1957)의 옛 일을 알아보기 위해 담양에서 살았던 집을 찾아갔다. 바로 새우젓 장수 모녀가 추운 겨울에 잠깐 일보러 나간다고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 무렵이면 아직 전깃불이 들어오지 않는 때였다. 그해 4월에야 한성전기주식회사가 서울 종로에 3개의 가로등을 켜다. 이것이 우리나라 민간에 켜진 최초의 전깃불이었다. 그래서 4월 10일이

전기의 날이 되었다. 5월에는 파리에서 2회 올림픽이 열렸다. 7월에는 서울과 인천 간에 시외전화가 개통됐다. 소설가 현진건과 김동인이 태어난 해이다. 한의학자 이제마가 세상을 떠난 해이기도 하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등 8개월여 지났지만 담양은 아직 전기 구경을 못해보았다.

지응현은 광주군 대치면 중옥리에서 제법 잘 사는 집이었다. 원래 부유했던 집안이 아니라 스스로 일궈낸 자수성가했던 것으로 보인다. 마을 사람들은 지 참봉 댁이라 말하는 데 중추원 의관 첩지까지 받았던 것으로 전한다. 예전 같으면 마을을 찾은 나그네는 관찰아 보이는 집 대문을 두드리고 행랑채에서 잠시 기거하다 가는 일들이 있기도 했다. 새우젓 장수 모자로 알려진 이들도 인근의 장날을 찾아 새우젓 등을 팔았는지 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지 참봉 댁의 문을 두드렸고 행랑채에서 잠시 머물렀던 것으로 보인다.

“아들아. 집에 가져갈 쌀도 얼마 없는데 쌀 좀 구해올테니 잠시 이곳에 있으려무나.”하고 아들에게 말했다. 아들은 10살은 넘어보였다. “아니요. 따라갈래요. 날씨도 추운데 엄마 혼자



▲ 담양 중옥마을 입구. 오른 편 건물이 한국도로공사 담양지사이다.

돌아다니시면 힘드시잖아요. 제가 손을 꼭 잡아 드릴게요.”라고 말하고 따라가겠다고 했다. “아니다. 바깥 날씨가 꽤 추우니 이곳에서 따뜻하게 있는 게 좋지 않겠니. 지 참봉 어른신도 우리에게 잘 대해 주셔서 추위를 피해가라고 하지 않았더냐.”라며 집안에 남아있으라 했다. 그리고 돈 꾸러미를 허리춤에 단단히 매고 옷을 꺼입었다. 이 모습을 본 아들은 “엄마, 돈도 위험할텐데 제가 옆에서 따라가야 안심이 들어요. 저 혼자 남아

있으면 엄마 걱정만 되잖아요.”라고 말하고 엄마 손을 꼭 잡았다. 두 모자는 이날 아침 이렇게 말을 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결국 며칠 동안 이 집에서 머물던 새우젓장수 모자가 이른 아침부터 문을 열고 나섰다. 이들은 한동안 그냥 머무르기 미안했던 지 지 참봉 댁 하인에게 쌀을 구하러 나간다고 말했다. 새우젓장수 모자는 지 참봉 댁에 잠시 머무르고 떠난 방에는 새우젓 여덟말, 쌀 다섯되, 목화 다섯근이 남아 있었다. 꽤나 값이 되는 양이었다. 사실 이 정도 양이면 모자가 들고 다니기에는 힘겨운 정도가 아니라 아예 갖고 갈 수 없는 양이었다. 그런데 새우젓 장수 모자는 쌀을 구하러 나간다고 그 집들을 맡겨놓은 뒤에 여러 날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다.

### ■ 중옥마을은 풍수지리 弄珠形 명당

해운이는 중옥마을을 찾았다. 새우젓 장수 모녀가 궁금했기 때문이다. 마침 주민 가운데 나이 들어 보이는 한 어른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잠시 멈춘다. 마을 내력을 잘 안다는 최풍조(72) 씨에게 ‘지참봉 댁’을 물으니 대뜸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알려준다. “이 동네 만석꾼이었지. 저기 대밭 아랫 집이야.”  
그리곤 옆에 있던 최중현(82)씨에게 길 안내를 맡아달라고  
부탁한다.

함께 멀리 대밭이 보이는 곳 앞까지 갔다. 옛 마을이다 보니  
반듯이 가는 길은 없고 빙 돌아갔다. 옛 지참봉 댁까지 안내해준  
최중현씨의 손짓을 따라 대문을 열고 들어갔다. 마당은 넓었고 5  
칸 접집 규모가 되는 집 한 채가 딱 하니 버티고 있었다. 대충  
훑어보니 일부 옛 기둥이 남아있고 거기에 개축을 했던 흔적들이  
보였다. 옛 모습을 짐작할 뿐이었다. 지붕 너머로 키 큰 대나무  
집을 호위하는 듯 자리를 잡고 있었다. 햇볕도 잘 들었다. 이런  
곳이 명당인 듯 싶었다.

지 참봉이 광주 수기동으로 이사 간 후 박씨네가 살고 있었다. 박  
씨는 그날 서울을 다녀온다며 나간 터라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요즘 시골집들은 어르신들만 살고 있거나 빈집이 많이 있다는  
느낌이 다가왔다.

최중현씨는 “왼쪽에 있던 행랑채는 진즉에 무너져 집안 텃밭으로  
사용되고 있지.”라고 말했다. 집 뒤로는 커다란 대밭이 펼쳐져



▲ 지응현의 옛 집을 안내하며 따라오라고 손짓하는 최중현씨(위). 지응현의 집은 지금은 옛 모습이 완전히 바뀌었지만 일부 남은 기둥이나 주춧돌로 볼 때 5칸 집으로 보인다. 대문 왼쪽 편에 있던 행랑채는 무너져 텃밭으로 사용 중이다. 집 뒤로는 대밭이 펼쳐져 있고 집안에 햇볕이 잘 들어 누가 봐도 명당자리이다.(아래)

있었다. 마당에는 큰 감나무가 3그루가 있었다. 나뭇가지마다 단감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다. 올 겨울 단감 껌나 먹을 성싶었다. 전체적으로 매우 커 보이는 집이었다. 지참봉 집 마루에서 내다보면 중옥마을의 널따란 논이 평야처럼 보이는 착각이 들 정도이다.

이곳의 땅 형세가 농주형(弄珠形)이라고 한다. 농주형은 구슬을 가지고 논다는 형세를 말한다. 누가 구슬을 가지고 노는 것일까. 바로 용이다. 농주형의 기본은 쌍룡농주형(雙龍弄珠形)이다. 용은 입으로 호주(狐珠)를 물고 승천한다. 만약 이 호주를 얻지 못하면 만년이 지나도 승천할 수 없다. 때문에 이 구슬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만약 구슬을 얻으면 즐거워서 가지고 놀게 됨은 자연의 정이다. 그래서 농주(弄珠)는 이욕고 승천의 조짐이므로 이 지형이 명당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옥산(玉山)이라 했다는 설이 있다.

다른 설로는 지네형국[蟻蚣形]의 서오산, 중오산, 동오산 명당설이 있는데 이곳이 중오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선조 때 풍산(豊山) 이서구(李書九, 1754~1852)가 지나다가 삼옥

(중옥, 서옥, 동옥)이 보인다고 말해 마을이 중옥에 해당되는 지역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중옥마을을 마을 주민들은 중옥산이라고도 말한다.

지금으로 보면 북광주IC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데 행정구역은 담양군 대전면 중옥리가 된 곳이다. 한국도로공사 담양지사 건물이 중옥마을 초입에 커다랗게 서 있다. 1914년 일제강점기 때 전국에 걸쳐 대대적인 행정구역 개편이 이뤄졌다. 전북 고창군이 전남을 떠난 것도 이 때였다. 그 이전까지 한 번도 광주를 벗어나 본 적이 없는 대전면도 이때 처음 담양 땅이 됐다. 광주시립민속박물관 조광철 학예연구사는 행정구역이 달라졌다고 해서 실제 일상생활이 눈에 띄게 확 바뀐 것은 아니었다고 한다.

-용전마을이나 생용마을 등 지금의 건국동 일대 사람들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대전면 소재지에서 열리는 한재장을 보러 영산강을 건넜다. 광주 사람들이 대전면을 친근한 곳으로 느끼는 것은 이곳이 오랫동안 광주에 속한 땅이란 인연 때문이 아닐까 싶다는 것이다.

■ **행랑채 모자 몇 달 동안 소식 없어**

중옥마을은 경주 최씨들이 모여 사는 자자일촌이다. 선조 33년인 고운(孤雲) 최치원(崔致遠, 857~?)의 25세손 최종길이 임진왜란 때 공을 세우고 1600년 순국한 후 둘째아들 옥음 최경우가 광주 대촌면에서 아내 강릉 류씨와 친정 식솔을 따라 이주 개척자가 되었다. 그 후 1880년경 지응현의 선조인 충주 지씨 지문석이 옮겨와 살았다.

중옥마을은 들이 넓고 토지가 비옥하여 자손이 살 만한 지역이라 하여 후손들이 400여 년 넘게 삶을 꾸려가고 있다. 충주 지씨는 10호쯤 살다가 거의 떠나고 현재는 경주 최씨가 가장 많고 여러 성씨가 함께 살고 있다. 중옥마을 전설로 ‘칠부자 출현설’이 있다. 마을 이름이 ‘옥(玉)’자와 관계가 있다 하여 풍수지리설에서는 이 마을에서 일곱명의 부자가 난다고 했다. 충주 지씨 지응현이 만석꾼이 되고 경주 최씨 최순호가 삼천석을 했다고 한다. 그 후 경주 최씨 최기선이 당시 200두락의 앞뜰 논 상자답(裳字답)을 받았다 하여 이미 세 부자는 나온 셈이다.

두락(斗落)은 마지기의 이두식 표기로 씨앗 한 말을 뿌릴 수 있는

크기를 말한다. 한 마지기 크기는 마을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200평 규모가 일반적이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 사이에 네 번째 부자가 언제 나올지는 늘 관심을 두고 있다고 한다.

해온이는 아침밥도 거른 채 지 참봉 댁을 훌훌 빠져나간 두사람의 행적이 궁금했다. 이들이 쌀을

구하러 간다고 했으니 장날이 되어야 쌀을 구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담양장은 2,7일이 장날이고 창평장이 5,0일이 장날이었다. 그리고 가까운 한재장은 3,8일이었다. 담양장과 창평장은 두 곳 모두 20km쯤 떨어진 곳이다. 추운 겨울날 사내아이를 데리고 걸어가기엔 먼 곳이다. 다만 한재장은 걸어서



▲ 중옥마을 만석꾼으로 알려진 지응현

20~30여분 거리인데 그 날은 장날이 아니었다.

지 참봉은 걱정이 됐다. “이들이 설마 오늘 장이 선 창평시장까지 쌀을 구하러 갔을까?” 그곳까지 가려면 영산강을 건너야 하는 데 어떻게 건넌는지 걱정이 앞섰다. 수량이 적은 철에는 바짓가랑이만 걸어붙이고도 금방 건널 듯 가까워 보이지만 큰물이 지면 노도와 같은 검붉은 물이 강둑을 넘칠 기세로 흐르는 곳이 영산강이다. 쉽게 건널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해운이도 걱정이 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 때 영산강을 건널 수 있는 나룻배는 지금의 용산교 근처에 있었다. 이 배는 또한 대전면 사람들이 광주 큰장을 보러 광주 쪽으로 들어올 때도 이용하곤 했다. 두 모자가 나루터를 이용했다면 이곳 밖에 없었다.

이 나룻배는 강둑 양쪽에 밧줄을 걸어 이것을 당겨 이쪽저쪽을 오가던 일종의 ‘줄나루’였다고 한다. 이 일대에 사는 70~80대 노인들은 아직도 이 나룻배로 강을 건너던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나룻배라도 타고 건넌다면 다행일 듯 싶었다.

설사 영산강을 건넌더라도 지금의 5.18국립묘지가 있는 부근의 산을 넘어야 하고 석곡천과 창평천도 건너야 하는 험한 길이었다.

가는 길도 그렇지만 돌아오는 길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었다. 10살배기 아이를 데리고 함께 가는 길이 너무 걱정이 들었다.

그렇게 한 달 여가 훌쩍 지났다. 지 참봉은 마음이 애탸다. 두 모자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주변에서 들리는 이야기로 어디에서도 모자가 죽었다는 소문조차 들리지 않았다. 사람을 풀어 세 곳의 장날에 시장을 뒤지며 사람들에게 묻기도 했다. 영산강변에서도 두 사람을 봤다는 사람도 없었다. 짐까지 맡겨놓았는데 이를 어찌해야 할 것인지도 걱정이 됐다.

지 참봉은 새우젓도 있고 해서 그들의 짐을 그대로 놔둘 수가 없는 지라 처분하기로 했다. 마을 사람들에게 공매를 했더니 그 값이 이원 오전이였다. 당시 인천 개항장의 한국식 여관은 1박에 20전 정도였다고 생각하면 당시 물가로서는 꽤 비싼 수준이였다. 지 참봉은 일단 그 돈을 보관하고 행여나 그 모자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다며 기다렸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었다.

### ■ 모자 새우젓 판 돈 불려 상자답 마련

지 참봉은 그 모자의 새우젓 등을 판 돈을 써버릴 수도 없고 그대로



▲ 모자가 행랑채에 남겨놓은 새우젓 등을 팔아 이자를 불려 마을 앞에 논을 마련하여 소작료를 받아 모자의 제사를 지냈다. 그 논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는 중옥마을 앞 널따란 논.

놔둘 수도 없어 어떻게 할바를 놓고 고민이 됐다. 해운이가 슬그머니 지 참봉의 귀에 대고 조용히 말했다. “별 수 없어요. 돈을 그냥 놔두기도 그러니 우선 마을 사람들에게 빌려주면 어떨까요. 그러면 이자가 붙어 돈이 늘 것 같은데요.”

지 참봉은 해운이의 귓속말에 ‘웁다구나!’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지 참봉은 돈이 급한 마을 사람에게 한 달에 서푼 이자를 받기로 하고

돈을 빌려주었다. 여러 사람들이 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순서대로 융통해주었다. 그렇게 육년 동안을 기르니 본전과 이자를 합쳐 무려 십원 구십칠전 육리가 되었다고 한다.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일이 그리 쉽지 않은 일이었다. 돈이 점점 늘다보니 여러 곳에 돈을 빌려주게 되고 일일이 신경 써야 하고 때로는 돈을 받으러 가야하고 성가신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 좀 더 나은 방법은 없을까 하고 다시 고민했다. 해운이가 다시 지 참봉의 귀에 대고 묘수를 말해주었다. “이 돈으로 논을 사서 마을에 소작을 주면 어떨까요. 그럼 가만히 있어도 쌀이 제법 들어올 텐데.” 지 참봉은 다시 무릎을 치며 좋아했다.

지 참봉은 이 돈이면 꽤 쓸 만한 땅을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땅을 사서 소작으로 빌려주면 가만히 있어도 쌀을 받을 수 있어 좋다고 생각했다. 당시 쌀은 모든 부의 척도였다. 쌀로 빌려주기도 하고 이자를 쳐서 받기도 했다. 이 돈으로 중옥마을의 앞뜰 논 상자답 1마지기 5되지기를 샀다.

그리고 중옥마을 동중(洞中)에 내놓고 마을회의를 붙였다. 마을 사람들은 지 참봉으로부터 이 땅의 내력을 듣고 매년 필요한

사람들이 소작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누구든 이 전답으로 농사짓는 사람은 풍흉에 관계없이 소작료로 쌀 한 섬을 내놓기로 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도 이 모자는 돌아오지 않았다.

지 참봉은 너무 추운 날 이들 모자가 나갔다가 죽었을 것으로 보고 소작료로 들어온 쌀로 제사를 지내주기로 했다. 제삿날은 지 참봉 댁에서 나간 음력 10월 15일로 했다. 이러한 마을 기록을 남기기 위해 마을 입구에 비석을 세웠다. 그게 제하상 모자비(祭鰈商母子碑)이다.

이런 일이 신문에 소개되기도 했다. 1918년 6월 26일자 매일 신보(每日申報) 3면 4단에 걸쳐 보도됐다. 해운이는 옛날 글이라 좀 힘들게 풀어서 읽었다.

“전남 광주군 광주면 수기옥정에 사는 지응현(당 50세)씨는 19년 전인 1900년 10월말에 새우젓장사 모녀가 그의 집(당시 대전면 중옥리)에 와서 며칠 동안 머물다가 쌀을 빌려나간다 칭하고 가져온 짐을 맡겨 놓고 나간 뒤 십여일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다. 지씨 집에서는 모자가 맡겨둔 짐에서 썩는 냄새가 나서 열어 보았더니 새우젓 8말, 백미 닷되, 목화 다섯근이 있어서

이것을 잘 말려두었으나 한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 이를 팔았더니 이원오전이였다. 몇 달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자 지씨는 이 돈을 한 달 서푼 이자를 놓아 6년 동안 길렀더니 본전과 이자를 합해 10원97전6리가 되었다. 이 돈으로 대치면 중옥산리 앞뜰 논 1말5되직이를 사서 동리에 맡기고 풍흉에 관계없이 소작료로 한 섬씩을 내놓도록 했다. 그 수곡으로 이 모녀가 돌아오지 않은 것은 필시 죽었기 때문일 것이므로 이 모녀가 지씨 집에서 출타한 10월15일에 제사를 지내도록 했다. 그러나 18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자 동네 앞에 이 사실을 기록한 비를 세우고 먼 뒷날 까지도 이를 잊지 않을 증표를 삼기로 했다고 한다.”

이에 앞서 황성신문(皇城新聞) 1910년 4월 24일자에도 관련 기사가 실리기도 했었다.

### ■ 제하상모자비, 30여년 전 병천사 옮겨와

이 제하상모자비(祭鰈商母子碑)는 지금은 광주시 서구 금호운천길 31 병천사(秉天祠) 앞에 있다. 병천사 삼문 앞 앞뜰에는 봉남 지응현의 공덕을 기리는 공덕비, 기적비 등 14기가 있다.



▲ 중옥마을 입구에 있던 제하상모자비는 30여 전에 병천사 앞뜰로 옮겼다.

이 가운데 앞뜰 남쪽 맨 끝에 있는 비석이 새우젓장사 모자를 기리는 제하상모자비이다.

장방형의 좌대 가운데 홈을 만들어 일반 호패형의 비 몸을 세웠다. 크기는 높이 140센티미터, 너비 46센티미터, 두께 27센티미터이다. 앞면에 1행으로 ‘제하상모자비(祭蝦商母子碑)’라 내려쓰기로 새겼고, 3면에 글이 있다. 뒷면은 내력이 새겨져 있다.

“백하장수 모자는 모두 성명을 알 수 없는데, 그 모자가 새우 8말, 쌀 5되, 면화 5근을 갖고 참봉 지응현 댁에 머물렀다. 밖으로 나간 지 오래 되었지만 돌아오지 않아 지 참봉은 그들의 죽음을 슬퍼하며 이를 팔아서 논을 사서 옥산리 마을에 의탁하였다. (그 모자가) 나간 날이 경자년(1900년) 10월 15일이어서 매년 제사를 지내도록 했으니 지참봉의 덕의가 이처럼 큰데 그들 모자의 외로운 혼을 슬퍼하여 마을에서 해가 오래되어도 흑시라도 거르지 말고 제를 지내도록 했다.”

비석의 향좌면은 기미, 1919라는 연대 표기가 있고, 비문 지은이는 하동인 정봉현(鄭鳳鉉), 글씨 쓴 사람은 경주인 김교진(金敎珍), 비를 세운 유사는 함평인 이순범(李純範)이라 했다. 향우면은 담양대전면



▲ 제하상모자비가 원래 있었던 지역으로 알려진 한국도로공사 담양지사 건너편 자리.

중옥리의 전답 면적이다. “담양군 대전면 중옥리 상자답 1마지기 5 되지기 85답 441평”

지응현의 문집인 《봉남실기(鵬南實記)》 부록에 이런 내용이 자세히 실려 있다. 지응현은 1904년 수기동으로 이사와 살면서 중옥마을을 오가며 새우젓 모자의 전답을 관리한 것으로 여겨진다. 1927년 지응현은 회갑을 기념해 광산군 서창면(현 금호동) 일대의 전답과 임야 5만여평에 병천사를 세우기 시작해 1932년에 완공했다. 그

경내에 천재독서실이란 집을 지어 가난한 청년들을 합숙시키라는 유언까지 남길 정도였다.

지응현이 처음부터 부호였던 것 같지는 않다. 그가 담양에 살 때만해도 일찍 부모를 여위고 가진 것이라고는 땅 두마지기 정도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그런 지응현이 어떻게 굴지의 부자가 된 과정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다. 일부에서는 16세 때부터 포목상과 미곡상 등 장사로 재산을 모았다고 하며, 일부에서는 조상의 묘 자리가 좋아 그 복으로 자수성가했다고도 한다. 하지만 어느 것도 현재로서는 확인할 길이 없다.

해운이는 어떻게 돈을 벌었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돈이야 있든 없는 그 돈을 자신이 취하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해 썼다는 사실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 지응현은 수많은 기부와 학교를 세우는 등 지역 발전을 위해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이었다. 새우젓장수 스토리는 이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쳤다. 지응현의 손자인 지용(池龍·76)씨에 따르면 “이 비는 그동안 중옥마을 입구에 있다가 30여년 전 병천사 뜰로 옮겨왔다.”고 한다. 지금은 이 모자의 제사가 중지된 듯하다.

### ■ 학교 세우고 '농군사관학교' 운영

지응현은 정락교, 최교일, 박원승 등 네 사람과 함께 1925년 4월 동구 불로동 12번지에 150평의 땅을 사서 목조와가 5칸짜리 수령당(壽寧堂)이란 노인당도 지어 광주읍에 기증했다. 그 뒤로 도시계획 때문에 기존 건물을 헐고 1999년 11-2번지에 현대식 2층 건물을 새로



▲ 지응현은 정락교, 최교일, 박원승 등 네 사람이 기증한 수령당 노인당은 도로계획에 밀려 허물고 1999년 현대식 2층 건물로 새로 지었다.

지었다.

지응현은 1930년 아들 지창선의 이야기에 동의하여 재단법인 응세농도학원을 설립했다. 쌍촌동 현 가톨릭대학 부지 25만평을 축산실습지로 삼았다. 따로 쌍촌동, 내방동 일대 300두락을 경작 실습지로 삼은 뒤 지산동 480번지(현 살레시오여고 자리)에 학교 건물과

기숙사를 세우고 입학생은 전원 합숙시켰다.

농군사관학교라는 별칭으로 불렀던 이 학교는 광복 후에 덴마크식 축산입국에 뜻을 두고 농도학원을 응세축산학교로 교명을 바꾸고 수의고등학교를 병설했다. 살레시오학교법인이 지산동 농도학원 건물을 같이 쓰게 하여 학교 이름을 응세살레시오라 하였다. 재단법인을 살레시오학교 재단에 통합했다.

지응현의 부인은 광산김씨 김남수의 딸 김계(金桂, 1868~1964)로 새우젓장수는 필경 문수보살의 화신이라는 믿음으로 독실한 불교 신자가 되었다고 한다. 법명을 정명월(淨明月)이라 했다. 김 보살의 사위가 광주의 유명한 인상주의 화가 오지호 화백이다. 그를 불러



▲ 수영경로당 입구에 있는 지응현 등 네 사람의 공적비가 서 있다. 1935년 3월에 경로당 회원들이 십시일반 돈을 건여 '지응현덕의기념비'를 세웠다고 한다.

불화를 그리도록 권유해 서양화가인 오 화백의 불화가 원호사에 걸리게 되었다.

김 보살은 맨 처음 1930년 원호사의 칠성각과 심왕사를 짓도록 시주해 그의 불망비가 1934년에 세워졌다. 1944년에는 원호사 단청비용을 시주해 이에 대한 비도 원호사 경내에 있다. 1954년 불타버린 원호사 중창사업 중 3일 동안 종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주춧돌 밑에서 비로자나불 불상이 나왔다고 공덕비에 기록되어 있다.

6·25전쟁 때 불타버린 원호사를 중건해 1960년 그 실적을 새긴 공덕비도 있다. 김 보살은 96세까지 장수를 누렸다.

▼ 광주 곳곳에 지응현 공적비가 80여개쯤 세운 것으로 추정되나 병천사 앞으로 옮겨온 것은 모두 14기이다.

